



# 국민에게 다가서는 원자력 홍보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맞이하는 새 해 아침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지만 올해는 원자력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 크고 작은 국가적 행사가 치러진 가운데, 우리 원자력계에서도 신고리 원전과 울진 지역의 신규 원전 부지의 지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영광 5·6호기의 준공 및 울진 5·6호기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등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에 의해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한 해

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를 둘러싸고 지역에서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울진 원전에서 방사선 오염 사고의 신문 보도 등으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을 뒷받침할 국가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의 국민적 이해 기반 확충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기존 홍보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작년에 매듭을 짓지 못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력 홍보 환경 및 전략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둘러싼 홍보 환경이 결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방사성 폐기물 후보 부지 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후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반핵 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거세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렵게 마련한 신규 원전 부지에서의 원전 건설 계획도 원전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 핵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전력 수요 성장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우리 나라 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압력도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우리 재단은 비판적 여론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원전 활동에 대하여는 NGO와의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화 및 원자력 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홍보 활동에 임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의 홍보 활동을 진단하고 변화된 홍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홍보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지지 기반 확충을 통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TV·라디오·신문·단행본·월간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꾸준히 전파할 계획이며,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원자력 시설의 견학도 직접 원전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전파할 수 있



올해에는 특히 21세기 지식 사회에 부합하는 신개념 홍보를 위하여 홍보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법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한다.

는 장점이 있으므로 금년에도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원전 시찰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와 관련한 홍보 활동은 특히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을 주제로 한 작문·논문·포스터 등 다양한 공모전을 시행하고 청소년 원자력 캠프, 우수 고교생 현장 학습, 원자력 전공 대학생 워크숍 등 원자력 시설 방문 및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차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 연수원에 원자력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현직 교사들의 교과연구 단체인 원자력교육연구회에 대

해 세미나 및 원전 견학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자력계 전문 인력을 강사로 위촉하여 원자력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파견하여 원자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자 한다.

### 원자력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의 확보 및 지정 고시된 신규 원전 부지에서의 원전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은 원자력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홍보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성 및 방사

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를 활용한 특집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민 토론회와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원자력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코자 한다.

그리고 TV를 통한 광고 및 캠페인 제작 방영, 라디오·신문·전문지를 활용한 광고를 게재하여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언론사 기자단 및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외 시설 시찰을 실시하여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

### 홍보 기법의 선진화

올해에는 특히 21세기 지식 사회에 부합하는 신개념 홍보를 위하여 홍보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법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원자력 정보 포털 사이트로 육성하여 원자력 홍보를 주제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 원자력 퀴즈 이벤트 실시, 인터넷 월간지(Webzine)를 통한 정기적인 원자력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자료 입수·분석의 체계화를 위해 원자력 홍보용 종합 DB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자력 문화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축중에 있다. 원자력 정보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주요 여론 주도층·유관 기관·시찰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 홍보 고객 DB를 구축하여 맞춤 홍보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원자력 방송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도 올해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민 의식 조사도 계속 시행하여 원자력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 및 간이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원자력 홍보 모니터 제도를 통해 홍보 활동에 대한 반응 및 원전의 안전성, 지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 여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홍보 활동 및 홍

보전 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맺음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자력 문화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자력 홍보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넓혀 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희망찬 미래의 꿈을 밝혀줄 원자력이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